

전돌재현 30여년 '후회없는 구도'

산문박의 禪

외전연구가 김영림씨

◇외벽 전체를 전돌로 만든 삼선포교원 김씨는 삼선포교원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작품'으로 평가한다.

◇삼선포교원이 도돌로 삼은 경주 분천사 향사 모전석탑(국보 30호).

점토를 구워 만든 전통벽돌과 기와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나 공물을 정열하는데 쓰여왔다. 목조건축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건축물에 전통적인 건축용 재료로 화려하지도 야하지도 않고, 질박한 모습으로 은근한 멋을 풍기는 돌이 바로 전돌이다.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과 틈바구니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보듬고 있는 전통벽돌(벽돌)과 기와의 명인 김영림씨(한국도형미술연구소 대표, 60). 자칭 그 전통의 맥이 끊길 뻔한 우리의 전돌을 오늘에 살려 구도자의 자세로 30여년 한 길만을 걸어 온 이 시대의 장인이자.

광주의 요에서 순식물성 청자유약을 재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는 66년 경북공예에서 인부들이 담장을 보수할때 전돌로 된 담장에 케인트칠 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바로 그때 열을 지내던 도련수 교수원재 씨가 말했다. "전돌 한번 예쁘게 놔주세요."

그 우연한 조 운과의 만남이후 전돌을 재현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 도서관을 온통 뒤지고, 좋은 흙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굶어죽는 날까지 애썼던 것이다.

"수행의 길로 들어선 수행자들도 자신 속의 많은 의심을 만나고, 또 부수고 한다지요. 그때 재 모습이 꼭 그랬어요. 처음 전돌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전돌을 재손으로 만들고 부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살아 빛이 놓으면 갈라지거나 깨지고, 장구위 찢겼지 하고 불문을 열면 하얗게 되어 버리니 한해 동안 온 정성을 쏟아 부었지만 전통 전돌을 만들어 내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통두꺼비 가마를 지키던 어느날,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가마가 온통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포기해야하지가 무너진 가마를 덧없이 뒤적거리다가 너무나도 귀찮게 변해버린 전돌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었던 전돌 식히는 방법을 바로 한 순간 퍼부은 차가운 소나기 덕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저는 빗속에서 전돌과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환희로운이랑, 전돌은 재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화두였던 셈이죠."

그날 이후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는 전돌장인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법륜사 외벽에 장식된 전돌에 새긴 연꽃과 법륜문양.

**의심하고 부수고 무수한 시행착오 포기해야지 하는 순간 비법 터득
흙고르고 문양내고 구워낼때까지 6개월동안 수행자 심정으로 작업
삼선포교원·진천 보탑사 등에 전통미와 견고함 차곡차곡 쌓아**

지금껏 수많은 문화재와 사람이 그의 손길을 거쳤다. 옛 국립박물관 정문, 예술의 전당, 영주산성 복원공사, 청와대, 삼선포교원, 진천 보탑사, 법륜사 등은 그가 직접 참여한 건축물이다.

그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품계 말하면 장인일뿐. 전통작업을 작품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은 작업이지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도 그가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바로 삼선포교원이자.

"삼선포교원은 건물자체가 정답형식입니다. 분황사 전탑모양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자고 신영준씨가 제안을 했고, 내가 직접 설계하고 전돌을 만들었어요. 설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합디자인도 몰라서 탐을 해체해본듯한 문헌과 도안을 얻어다가 내부구조는 카피하고, 외형을 설계했지요. 아무도 그 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감히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송광사 불일법륜마루가 들어간 법륜사 장식기와의와, 법륜사 외벽을 두른 전돌도 그가 만든 것이다. 특히 법륜사 내벽에 기와의 문양은 우리나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 무늬를 넣어 만들었는데 그 모양만큼이나 재작하는데도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전돌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때때로 그 이상이 걸릴때도 있다. 가장 부드럽고 고운 점토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적당하게 반죽을 하고, 두드리고, 문양을 내고, 바람이 잘드는 그늘에서 일일이 손으로 뒤집어 가며 말리고, 전통 두꺼비 가마에 불을 지피며, 마지막 구워진 것을 식히기까지 단 한 순간도 물과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생명의 본래 그 자리를 여의지 말라는 수많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는 항상 가슴에 새기며 단순한 흙반죽이 검은 듯 은빛을 발하는 알회색의 전돌이 되는 작



◇김영림씨. 그는 전통의 숨결과 혼을 불어넣은 생명력 있는 전통민들거를 평생의 업으로 믿는다.

업에 임하는 것이다. 한시도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흔들림없는 무심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전돌만이 천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다고 믿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제작과정 때문에 전돌은 대량생산이 힘들다. 요즘처럼 워튼지 빨리 팔라를 화선으로 아는 이들에게 그래서 전돌은 팔리지 않는다. 기한일을 지키지 못해서 배상금을 물어준 적도 수차례다. 하지만 대충 만들어진 전돌은 단 한 개도 밖으로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전돌 장인 김영림씨의 철칙이다.

힘든 세월속에서도 어렵사리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는 요즘, 이땅에서 전돌장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새삼 실감한다.

일반 사업가들이나 당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여주의 공릉도 경매로 남의 손에 넘어갔다. 전돌과 기와를 만드는 일이 부도를 낼 만큼 큰 기업성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의 전돌과 기와를 가진 사람이 부도를 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다시 돌아와 그 지경에 이르렀다.

전돌을 배우던 이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금속공학을 전공한 그의 사위 이상벽씨(38)만이 그의 곁에서 7년째 전돌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가마도 공정도 모두 잃었지만 아직도 그는 할 일이 많다. 국적불명일 뿐 아니라 장인 정신 없이 날림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 땅의 건축에 전통미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불어넣는 일, 그 일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루종일 전통생각만 합니다. 평생 업은 단념 못하는가 봐요. 내가 어렵다는게 알려지니까 오히려 요즘 들어 주위에서 입을 꺾이지 않고 마음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꼭! 다시 일어날겁니다."

글=이은자 기자 (eij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p@buddhapia.com)

전통벽돌이란

점토로 구운 벽돌...천년 지나도 무늬 선명

점토로 구워낸 벽돌이 전돌이다.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전해지는 전돌에는 역사적·역사상·보살상·신장상이 새겨져 왔으며, 절마다 전탑이 세워지면서 그 찬란한 문화가 번성해 왔다.

형전하고 있는 전탑으로는 안동신세동7층탑(국보16호), 여주신록사다층전탑(보물226호), 칠곡송림사5층탑(보물189호) 등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전탑의 형식을 모방해 석재를 깎아만든 모전탑이 널리 유행했는데 경주분황사석탑(국보30호), 재천장라리7층석탑(보물459호) 등이 남아 있다.

우리의 전통벽돌은 천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선명한 무늬가 아름답다. 그래서 안압지에 깔린 신라인의 보살화 무늬벽돌은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준다.

특히 백제와 같은 곳은 외박사 제도가 있어 전돌과 기와 생산을 하는 외박사들은 최고의 예우를 받기도 했다. 전은 부처님을 모신곳, 왕이 계신 곳에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 재조기술은 조선말까지 이어져 궁궐 건축에 쓰였으나 일제 강점기와 광복이후 혼란기에 끊어졌다. 김영림씨는 창덕궁 대조전을 지을 때 일했던 도련수 조원재 씨에게 전통벽돌과 기와를 만드는 비법을 듣고 정성을 다해 재현에 성공했다.

일본에서도 김씨의 전돌은 잘 알려져 있다. 도에가 심수관씨의 박물관 바닥과 안사사 상징인의 회랑에도 깔려있고, 90년 오사카 꽃박람회때 조선의 화초담을 쌓아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에서 전돌 만드는 일은 돈도 못버는 무지렁이나 하는 천한 것으로 치부돼 와 전돌 보존과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독특한 송광사 불일법륜마루를 넣어 만든 법륜사 지붕. 내림새 기와의 문양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성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죽면 성동 3리 822-2

전 화 : 0357)31-8736 호 출 : 012)321-6044 팩 스 : 0357)31-5549 핸드폰 : 011)284-5101

